

한의학대학생의 유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헌태*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Students who have academic failure

Shin, Heon Tae*
Korean medicine department,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cademic failure experiences of Korean Medicine Students. The academic failure in a medical school is defined as the situation the student who have academic failure need to repeat their academic year again.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from April to May 2016 and analyzed through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wice, for 30minutes to 60minutes per interview.

Results : Eight theme-clusters of were identified from 21 themes. The theme-clusters were 'Dream of university life and freedom', 'Meeting Stranger academic field and growing study stress', 'Difficulty of self-management', 'Weak supporting system', 'Feeling of guilty, sense of isolation and decreasing in self-esteem', 'The experience during the vacation after the academic failure', 'The experience of returning to school' and 'Self growing through hard experience'.

Conclusions : Understanding of academic failure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Students is an important approach to counsel them and an important way to reach a good model of education at a medical college.

Key words : Korean Medicine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Academic failure

I. 서론

매년 전국 한의과대학생 중 약 3%는 휴학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장 큰 휴학 사유 중 하나는 유급으로 인

한 휴학이다.¹⁾ 한의과대학생의 휴학률은 전국 대학생의 평균 휴학률 24.8%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휴학의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만 존재하는 유급제도²⁾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급을 경험하는 한

• 접수 : 2016년 7월 2일 • 수정접수 : 2016년 7월 18일 • 채택 : 2016년 7월 19일

*교신저자 : 신헌태(Shin, Heon Tae), Korean medicine department,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Jeonnam Korea,

전화 : 82-61-330-3528, 팩스 : 82-61-330-3519, 전자우편 : goodomd@naver.com

의과대학생대생의 본질적인 원인과 더불어 유급 경험이 한의과대학생 개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생의 유급과 관련된 연구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의과대학생의 유급 연구들의 경우³⁾ 유급을 구조적으로 경쟁지향적인 의과대학 문화와 과도한 학습량을 소화해야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낮아진 삶의 질이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⁴⁾에서는 유급의 원인을 대학교 진학 전 적성이나 흥미에 상관없이 부모와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교 진학 시 학업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기 쉽고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기를 보내거나, 고등학교 시절 학업에만 집중하다 갑자기 생긴 자유를 조절하지 못하고 학업 위기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중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는데, 유급생들은 대부분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복학 후에도 불안한 심리가 계속 되면 학업성취에 악영향을 주고 유급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급생 중 교수에게 의지하려는 학생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어려워해 심각한 문제라는 결과도 있었다^{5,6,7)}. 이렇듯 유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사전에 조사한 유급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대부분이 의과대학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유급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등의 경우 유급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유급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학과들의 학문적인 차이와 특수한 문화들을 고려할 때 각 학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급의 의미를 해석하여 학업실패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업생활로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의과대학생들은 타 의과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 높은 성적을 유지해온 학생들이며, 입학 후 대학 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짐과 동시에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6년의 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문제, 학업습관, 가족문제, 학과적응^{2,3,4)} 등을 경험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급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한 학업의 실패로 유급의 위기에 있어도 이에 따른 상담이나 도움

을 줄 수 있는 국내의 자료는 드문 편이다. 한편, 유급의 원인과 유급기간의 경험은 개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주제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의과대학생 유급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학생상담 및 지도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생의 유급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생의 유급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⁶⁾를 활용하여 한의과대학생이 경험한 유급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상학적인 관점을 가지는 연구의 경우 개인이 느끼고 있는 현상과 의식에 대해 그 본질을 해석하고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급을 경험한 한의과대학생들의 개개인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한 가지인 Colaizzi방법을 활용하여 한의학과에서 유급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한의과대학생의 유급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에 위치한 D대학에 한의학과 재학생들로, 한 학기 이상 수업을 받은 후 유급 경험을 통해 휴학과 복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1 남자7이었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to the study

No.	Age (When Failure Experience)	School year (When Failure Experience)	Sex	Motivation levels at admission (Voluntary / Middle / Involuntary)	Fail category (Below-average / Fail in subject)
1	20	1	M	M	F
2	22,23	2,3	M	V	B,F
3	23	3	F	V	F
4	20	1	M	M	F
5	24	3	M	M	F
6	26	3	M	V	F
7	25	3	M	V	F
8	20	1	M	M	F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심사를 받았으며(201605-SB-001-0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와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연구 대상자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보인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역시 이름대신 부호로 언급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협조해준 면담내용을 연구 목적 외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본인이 원할 경우 중단하고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 시작 전 면담내용이 녹취될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였다.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첫 만남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사전에 만든 유급경험에 관련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면접 날 전까지 생각해 보고 오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로 만들어진 유급에 관련된 질문지의 구성으로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급 전 대학생활 4문항, 유급기간 동안의 경험 4문항, 유급 이후 방학기간 경험 3문항, 기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두 번째 만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면담은 심층면

담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다. 자료 수집의 경우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하였다. 면담의 경우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전사자료를 정리하면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 추가 면담을 1회씩 수행하였다. 면담이 끝나고 나면 녹음된 자료를 활용하여 필사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1명당 바탕체 10포인트를 기준으로 A4용지 5장 ~ 13장 분량이 필사되었다.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녹음된 자료들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사 자료에서 참여자 이름은 기입하지 않았고, 참여자번호-페이지-의미문장번호⁷⁾로 부호화하여 자료를 관리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Guba 등⁸⁾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네 가지의 기준을 따랐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제작된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담으로 유급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애매한 진술을 할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연구자가 이해한 진술을 재정리해서 물어보는 작업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도출한 주제목록, 주제, 하위주제를 연구참여학생 3명이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유급이라는 현상과 유급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한다는 본 연구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 인터뷰에 몰입하다보면 참여자간의 맥락상의 차이나 각각이 느끼는 개별적인 인식의 차이로 간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유의점을 두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즉,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에 대해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 참여자와 면담진행시 진술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더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면담 전 연구자들은 한의과대학생의 유급에 대한 선행연구검토와 토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견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특수 관계에서 오는 연구결과 왜곡과, 연구자의 성장배경과 연구관점에 따른 연구결과의 치우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학과 출신 연구원을 인터뷰어로 고용하여 연구에 참여시켰다. 넷째,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해준 내용으로 기초로 도출된 주제와 범주를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지속적인 비교를 해봄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연구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 중 3명에게 피드백을 받은 것 외에,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타 학과 교수 1명에게 본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연구과정의 적절성, 주제도출의 적절성, 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6. 연구자의 준비성

본 연구의 연구자는 3년 전부터 매년 질적연구 학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대학원에서 ‘질적연구 방법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 전, 연구자는 다시 한 번 질적연구의 특징을 학습하고 또한, 연구자의 자기성찰을 통해 본 연구와 관련한 선입견은 없는지, 연구자 포지셔닝(positioning)에 따른 연구결과 왜곡은 없을지, 연구자의 성장배경과 연구관점에 따른 연구결과의 치우침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였다.

III. 연구 결과

참여자는 모두 8명이며 남학생 7명 여학생 1명이다. 참여자들 중 3명은 예과 1학년 당시에 유급을 경험하였으며, 4명은 본과1학년, 1명은 예과2학년과 본과1학년 2회 유급을 경험하였다. 유급 원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의 부족,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 낮은 학업동기 등의 원인으로 학업실패를 경험하고 유급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8개의 의미로 구분하여 62개의 하위주제와 21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Table 2).

1. 꿈꾸던 대학생활과 자유

연구 참여자들은 한의예과 입학 초기 고등학교 또는 재수시절의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꼈다. 또한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대학생활을 즐기는 것에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업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해방감을 더 추구하였다.

1) 해방감

연구 참여자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이나 혹은 재수시절 학업으로 인해 억압받던 것이 사라지고, 선배들과 어울리며 밤까지 놀고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도 부모님에게 간섭을 안 받는다는 생각에 억압받던 것이 풀리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2) 만족감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경험하면서 선배들과 어울리거나 성인으로써 합법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에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며, 과거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이제는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자기주도적인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관심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학 생활에 만족도를 보였다(Table 3).

Table 2. Theme clusters and themes of the Failure experiences

Theme clusters	Themes
Dream of university life and freedom	Sense of freedom
	Satisfaction
Meeting Strange academic field and growing study stress	Strange academic field
	Growing study stress
Difficulty of self-management	Having Bad study habit
	Confidence and self-sufficiency
	Health problem
Weak supporting system	Weak personal relationships
	Negative influence by their senior
Feeling of guilty, sense of isolation and decreasing in self-esteem	Feeling of guilty
	Sense of isolation
	Decreasing in self-esteem
The experience during the vacation after the academic failure	Having self reflective time
	Travel and participation at a church retreat
	Warm comfort and encouragement
	Reality can't easily accepted
The experience of returning to school	The first day of returning to school
	Mingling in the new class
	Positive change at the learning
	Help and comfort
Self growing through hard experience	Turning point toward positive changes
	Growing pain still achy

Table 3. 꿈꾸던 대학생활과 자유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꿈꾸던 대학생활과 자유	해방감	선배들과 놀러 다니는 것에 몰입함	대면식이니 동아리니 하면서 거의 한달 동안 기숙사를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과 일학년 이학년 때 선배 따라 돌아다니며 그 생활에 몰입했어요. (2-2-1)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림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다른 대학을 갔는데 다들 편하게 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했어요. (1-1-2)
		부모님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짐	고등학교 때는 성적을 못 보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집 가서 어떻게 말해야하지?' 하는 걱정이 더 컸었어요. 하지만 대학 와서도 그랬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3-16-2) (부모님의 과한 교육열로) 초중고를 공부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노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스무 살 때 내가 억압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딱 풀리니까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8-2-1)
	만족감	신나게 놀아봄	스무 살 때 내가 억압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딱 풀리니까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8-2-1) 스무 살에 대학 와서, 예과 1학년 때는 신나게 놀았으니까..(2-2-2)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	아무래도 집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3-16-3) 자취하는 방에서 기타도 치고, 전자피아노도 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3-16-4) 밥 먹고 늦게까지 술 먹어도 되고 생활이 너무 재미 있는거예요. (8-2-2)

2. 낮선 학문과의 만남, 커지는 학업부담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와는 다른 한의학 전공 수업에 대해서 낮선 느낌을 받았으며, 한의학과에 진학 후 본인과 적성이 맞지 않다 생각하여 흥미를 잃기도 하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많아지는 전공과목에 대한 부담감, 암기위주의 평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1) 낮선 학문체계

한의학 전공과목들을 배우면서 참여자들은 입학 전 익숙하게 접해본 서양의학과 다소 차이가 있는 동양의학에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옛날 서당 같은 곳에서 배울 것 같은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나, 강의내용이 마치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학문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중 일부는 유급 전 전공에 재미를 못 느껴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2) 커지는 학업부담

한외과대학의 교육과정상 한의학과1학년으로 올라감

에 따라 교양과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공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업의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평가시 이해에 기반한 문제보다는 암기해야 하는 양이 훨씬 많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Table 4).

3. 자기 관리가 어려움

참여자들은 학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을 미루거나, 수업을 안 나가는 등 잘못된 학업생활습관을 가졌거나, 고등학교 당시 우수한 학업 성적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해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고민이나 힘든 일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 한명은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로, 시험기간마다 몸이 안 좋아져 성적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1) 잘못된 학업생활습관을 가짐

참여자들은 잘못된 학업생활습관으로 과제나 시험 공부 등 학과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계속 미루거나 전공 수업에 지각할 것 같으면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Table 4. 낮선 학문과의 만남, 커지는 학업부담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낮선 학문과의 만남, 커지는 학업부담	낮선 학문체계	옛날 서당 같은 곳에서 배울 것 같은 재미없는 과목	총시(총장제시) 과목은 동양철학이랑 명심보감, 맹자였어요.(1-1-1) 동양 철학이나 맹자 등이 우선 옛날 책이고, 서당 같은 곳에서 배울 것 같은 재미없는 책이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1-2-3)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과목	고등학교 시절에 과학을 좋아했는데 (기준에 배운 과학과) 여기서 배우는 과학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의학은 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있는데 저는 좀 객관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6-1-1)
		학업에 재미를 못 느낌	원래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대 저는 재미가 안 느껴져서.. (6-2-3)
	커지는 학업부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암기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본초학이었어요. 확실하게 외우려면, 이해가 먼저 되고나서 받아들여 지는데, 무작정 암기만 하려니까..(3-3-1)
		중간고사 실패 후 낙담함	예과에서 본과 올라와서 중간고사 준비를 예과 때처럼 하면 되겠지 했는데, 중간고사를 망치고 나니까 기말에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2-1-1)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커지는 학업 부담		본1에서는 학점 자체가 한 과목 한 과목이 다 크고 점수는 잘 안나오고 하니까, 부담은 크고 공부는 안되었어요. (2-1-2)	
시험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움		시험볼 때 유형을 파악해야지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대 제가 그런 쪽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3-1-1)	
	선행학습 없이 따라가기 어려움	고등학교 때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서 수업내용을 따라 갔지만 대학교는 내가 선행 없이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3-2-1)	

등 학과생활의 안일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자신감과 자만심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습방법에 대한 자신감 있었다. 따라서 좀만 해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속 학업에 대한 안일함을 보였다. 또한 유급 위기가 왔어도 일부 참여자들은 혼자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기도 하였다.

3) 건강상의 문제

참여자들 중 한명은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유급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시험 기간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시험공부와 시험 중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였다(Table 5).

4. 빈약한 지지체계

참여자들은 고등학교에서 받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리가 없어지자 독립적인 학업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도움을 받던 선배가 졸업을 하면서 학업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배들과의 만남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인 관계보다 잦은 모임과 술자리를 통해 학업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으며, 학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하향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 지지해 줄 대인관계 부족

참여자들은 꾸준한 관리를 해주시던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사라지자 학업을 언제 얼마나 해야 할지 적당한 선을 잡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교육열이 높으셨던 부모님의 학업을 지지해 주던 관계가 약해졌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스터디를 해주시던 선배가 졸업함에 따라 자신의 학업을 도와줄 사람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 선배들의 부정적 영향

참여자들은 학과 선배들을 만나면서 잦은 모임과 술

Table 5. 자기 관리가 어려움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자기 관리가 어려움	잘못된 학업생활 습관을 가짐	일을 미루는 습관	습관을 고치는 게 힘들어요.. 술 문제는 아닌 거 같고.(2-3-1) 제가 말하는 습관은 수업에 늦은경우 지각처리하면 되는데 주뻗주뻗 가는 거 보다 그냥 안가고 말지하고 결석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할 일을 내일 모레로 좀 미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3-2)
		지각처리 될 것 같으면 수업을 포기함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지각처리를 할 텐데 그런데 저는 그냥 에잇 하고 안가고 또 자다가 점심 시간되면 그냥 오늘은 안가고 쉬자하고 수업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2-2-3)
	자신감과 자만심	조금만 해도 통과할 것이라고 자만함	조금만 공부해도 통과는 하겠지 하는 약간 자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7-1-3) 오히려 너무 힘든 것이 없어서 유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감도 없었고 .. (4-3-1)
		혼자서 해결하려고함	(고민을) 잘 해결 못했어요. 약간 좀 그런 걸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서 풀려는 스타일이라서..(7-2-1)
	건강상의 문제	아파서 시험공부가 힘들었음	뼈를 진짜 쾅쾅 얼린 다음에 망치로 치는 느낌이었어요. 방이 추우면 못 자겠고 링거 맞아서 괜찮았는데 집에 오면 다시 원상복귀 돼서 돌아가고..(중략)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시험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3-1-3)
		몸이 안 좋아서 시험에 집중을 못함	제가 좀 아픈 게 심리적인 것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중략) 2학기 중간고사부터 부담이 좀 크게 왔는데 중간고사를 또 못본거예요. 시험볼 때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깐 당장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3-1-2)
		시험 스트레스를 반복함	시험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 암기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반복되어 왔어요 (3-4-1)

자리를 가졌으며, 계속된 모임으로 학과생활에 영향을 받고 성적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 목표에 대해 하향으로 설정하여 통과할 수 있는 최소점수만을 목표로 잡기도 하였다(Table 6).

5. 죄책감, 고립감 그리고 자존감 하락

참여자들은 유급 직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을 느꼈으며, 무엇을 해도 우울함을 느끼고 유급에 대한 억울함과 후회감을 가졌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이미지로 살았기 때문에 최소 학점도 못 넘었다는 자신의 이미지가 깨지고 자존감이 하락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1) 죄책감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믿어 주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으며 부모님이 1년 학비를 한 번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2) 고립감

유급 직후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에 대한 후회감과 자신이 유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3) 자존감하락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시절 항상 상위권 성적이었던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미지가 깨지는 느낌을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였다(Table 7).

6. 유급 방학 동안의 경험

참여자들은 유급 방학 동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거나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행이나 수련회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였으며 유급 기간 중 진급한 동기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급

Table 6. 빈약한 지지체계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빈약한 지지체계	지지해 줄 대인관계 부족	도와주던 선배가 졸업함	본과 3학년 이었던 동아리 언니가 저를 옆에 앉혀서 스터디를 좀 해주셨어요. 근대 제가 본과에 올라가고 졸업하셨어요. (3-2-2)	
		부모님의 양육 태도 변화	입학 전 부모님이 교육열이 심하셨어요. 근대 대학입학 이후에는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터치가 거의 없으셨어요. (8-5-2) 부모님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대학 와서는 풀어주셨어요. (3-16-2) 예전보다는 부모님의 압박이 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7-7-2)	
		담임선생님 역할 부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든 (담임선생님이 관리해주시니까) 좀 하는 편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끝까지 안하다가 그만 유급을 당한 것 같아요. (1-2-1)	
	선배들의 부정적 영향	학업 목표를 하향 설정함	(선배와 어울릴 때) 재시만 통과해야지..하고 재시 통과할 정도로 60점정도 맞을 수준으로 공부해갔는데 공부 해간 게 빗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모르겠다.. (2-2-1)	
		잡은 모임과 술자리		선배들이 뭐랄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면식이니 동아리니 하면서 거의 학기초 한 달 동안 기숙사를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 먹고 수업 거의 안가고, 낮부터 술 먹고.. (중략)그냥 되게 좋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의대 합격할 정도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놀아도 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8-2-2) 학과 선배 중, 고등학교 2년 선배가 있어서, 그 형이랑 근데 같이 다니면 술밖에 안 먹는 거예요. 잘 챙겨 주시긴 하셨죠. 술 먹고 그 형 집에서 자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성적은 떨어지고 그랬죠 .. (8-2-3)

Table 7. 죄책감, 고립감 그리고 자존감 하락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죄책감, 고립감 그리고 자존감 하락	죄책감	주변 사람들을 볼 낯짝이 없음	고향에 내려가니까 절 믿었던 사람들을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8-3-3)
		1년 학비를 더 부담해 야 할 부모님에게 죄 송함	사실 그때 당시에는 1년 쉬어도 뭐.. 남들보다 1년 밀려도 자신한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학비를 더 부담해야 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았어요. (7-2-2)
	고립감	뭘 해도 우울함을 느낌	뭘 해도 우울해요. 놀아도 우울하고, 술 먹어도 우울하고.. 그냥 혼자 있 고 싶어 해요. 성격이 엄청 낙천적인 게 아닌 이상.. (8-5-1),
		억울함과 후회감이 들	일단 총장재시가 7월 14일이었거든요. 그 뒤에 일주일엔 집에서 안 나갔 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휴대폰 3일간 꺼놓고 잠만 잤어요.(5-2-1), 안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맞지만 그래도 약간 후회 가 되고.. 후회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하나 하는 억울함과 후회가 가장 많았어요. (1-3-4)
	자존감하락	'공부 잘하는 학생'이 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느낌	내가 (한의학과에 다닐) 수준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는 어느 정도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느 낌? 지금까지의 자아정체성이 부정되는 느낌 이랄까 ..(1-3-2)
		'유급생'이라는 꼬리 표가 붙은 느낌	유급도 당했는데 설치고 다닌다고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8-4-1) 술 마시고 학교 안 나오고 공부안하고 유급당한 사람. 최악이잖아요.(2-7-1)

으로 인해 힘들었던 점을 위로 받기도 하면서 가족지지가 더 돈독해 지기도 하였다.

1)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짐

참여자들은 유급 방학 중 학업방식에 대해 자만하던 것을 인정하였으며,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는 등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여행·수련회에 참가함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혼자 전국여행을 다녀오거나 가고 싶었던 동아리 밴드 합숙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3) 따뜻한 위로와 격려

참여자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입장이었으며, 가족들도 모두 심각하게 받아드리기 보다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줌으로써

참여자들은 한결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걱정으로 죄송한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걱정하고 위로 해주는 것을 통해 많은 심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4)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참여자들은 진급한 동기들에게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시험기간 동기들이 학과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으며, 또한 '왜 유급 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Table 8).

7. 복학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복학 첫날 새로운 동료 학생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과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어색한 출석부 순서에 위축되고 긴장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급생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새로운 지지체계를 형성하였으며, 학습 습관의 긍정적인 변화도 생기기도 하였다.

Table 8. 유급방학 동안의 경험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유급 방학 동안의 경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짐	자신의 한계점을 알게 됨	제 자신의 한계점을 알았죠. 난 머리가 좋은 게 아니구나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구나.. (7-4-2), (학업에 대해) 자만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에 대해 아니까 이제부터 다시 하려고요.(7-4-3)
		행동에 대한 기준을 잡고 뭐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움	가장 아픈 성장통 확실히 그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1-7-3) 일단 놀아도 할 것은 해야 하는 행동의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1-7-4)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봄	제 인생에 전환점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4-2) 지금까지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후회는 누구나 하지만 그걸 다시 꺼내서 좀 더 교훈을 얻는 거죠.(1-5-2)
		게임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봄	게임을 주로 했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한 거지, 특정 게임에 몰입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1-6-2)
	여행 · 수련회에 참가함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감	그때 중국에 가있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셔서 유급 당했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1-5-3)
		호주에 어학연수를 다녀옴	호주에 한 5개월 다녀왔습니다. 말이 어학연수지 쉬러다녀 왔습니다.(4-3-2)
		이모가 사시는 미국에 다녀옴	저는 두 달은 미국에 있었어요.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삼수까지 해가지고...(6-2-5)
		혼자서 전국 한 바퀴를 돛	아빠 지원받아서 혼자 전국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달 정도...(2-2-4)
		원하던 동아리 밴드 합숙활동 하며 마음을 정리함	(방학하고) 거의 한 3~4일 있다가 바로 (교회 수련회)합숙을 들어갔어요. (중략)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 친구들도 새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도 잘 안들었어요.(3-8-1)
	따뜻한 위로와 격려	부모님이 오히려 격려해주셨음	어머니는 뭐 요즘도 그러시는데 힘들면 대학을 십 년을 다니면 된다고 부담가지지 말라고. (1-5-4) 부모님은 그냥 괜찮다고 재수한 셈 치고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고 그 정도 물어보시고 뭐 한다하면 다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2-3-5) 부모님이 항상 말하셨는데 지금 몇 달이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신경 쓰고 우울해 있지 말라고.. (6-2-2) 중간고사 때 아팠을 때 부모님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셨는데, 제일 큰 것은 이제 제가 속상해하고 힘들어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3-6-2) 저는 들어온 것 자체가 타 학과에 있다가 부모님 추천에 있어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이 약간 미안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판보다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맞지 길을 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 같아요. (1-3-3)
		가족들이 평소와 다름 없이 대해줌	형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높거나 하진 않아서 내가 유급당한 부분에 대해 뭐라 하진 않았어요. 연장자로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하고 (1-6-1)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래..이러면서 자기 노는 사진 보내고 동생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남동생은 그냥 전혀 저한테 어떤 이야기도 안했고 평소대로 묵묵히 대해주었어요..(3-7-1)
		친구들이 위로해줌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시험 봤냐 뭐가 어려웠냐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냥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그렇게 위로해 주는 친구도 있었고..(3-6-3), 나는 이미 마음정리를 끝냈는데 자기가 정리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3-6-4)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진급한 동기들이 부러움	진주에 있을 때 진주 그 유등축제 밤에 보고 있는데 중간고사 때 인거예요. 밤에 혼자 강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동기에게 축제사진 찍어 보내면서 뭐하냐니까 공부한대요. 하 .. 좋겠다 .. (2-3-1)
		역율함과 후회를 느낌	안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맞지만 그래도 약간 후회되고.. 후회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하나 하는 역율함과 후회가 가장 많았어요. (1-3-4)

1) 복학 첫 날

연구 참여자들은 복학 첫 날 자신을 바라보는 어색한 눈빛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강의시작시 새로운 출석부 호명순서에 어색함을 느꼈다. 또한 ‘이제 누구와 밥 먹지?’라는 고민 등 복학 후 만난 새로운 학급 동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2) 새로운 학번에 녹아들기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학번과 친해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먼저 말도 걸어보고 유급생이라는 이미지도 바꾸기 위해 술 먹은 횟수도 줄이고 학습에 좀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학습습관의 긍정적인 변화

참여자들은 복학 이후 소홀했던 수업 태도를 바꿔 강의에 집중하려 노력하였으며, 유급 해당과목의 경우 미리 예습을 하고, 수업 중 좀 더 집중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흥미가 생기기도 하였다. 유급 해당과목이 아닌 경우에도 두 번째 수강을 통해 학습내용 이해와 시험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4) 도움과 위안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유급 전 부족했던 학습 지지체계를 새롭게 형성하려 노력했으며, 또한 유급을 경험한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교우관계를 만들기도 하였다(Table 9).

8. 힘든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유급 경험의 의미로 자신의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좀 더 넓은 안목과 성숙함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하였으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꿈에서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당하기 직전까지 설마 했던 자신에게 있어서 아픈 성장통이라고 하였다.

1) 긍정적 변화의 계기

참여자들은 유급의 경험을 학업 생활에 지장이 많았던 자신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이자, 새로운 학번을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심적으로 나약했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2) 여전히 아픈 성장통

참여자들은 유급의 의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랑’, ‘꿈에서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만 함’, ‘내 인생의 쓰나미’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유급을 이야기 하였으나, 유급이 학과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부족했던 자신을 성장시킨 발판이었기 때문에 또 겪고 싶지는 않은, 여전히 아픈 성장통이라 하였다(Table 10).

I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에만 존재하는 유급제도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과사를 양성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⁹⁾. 일반적으로 유급 규정은 해당학기 수강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F평점을 받거나, 1학기 평점과 2학기 평점을 평균하여 2.0에 미달할 경우 학생들은 유급된다. 유급된 학생은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해당학년을 다시 수학하여야 한다. 유급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 결여와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인한 자아 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하며 동기, 친구, 선후배, 이성친구, 가족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유급은 성적평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의과대학에서의 학업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맥락적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났다. 첫째, 한의과대학생의 유급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현실사이에서의 자기조절 실패, 한의과대학 교과과목 특성인 동양의학이론과 암기위주의 평가에의 적응실패, 다양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습과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던 환경 등의 원인으로

Table 9. 복학 경험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복학 첫날	낮선 출석부 순서	출석부 뒤쪽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전 학번에서는 저 뒤로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제 뒤에 3~4명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어색한 출석호명을 하고, 조용히 학교에 있다가 조용히 집에 온 것 같아요. (3-11-1) 교수님들도 학기 초에 얼굴 처음 보니까 한명씩 이름 부르고 얼굴 한번 씩 보시잖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네” 하고 싶은데 또 한번 인사하시는거예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3-11-2) 동급생들이 바뀌었으니깐 내 학번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있죠. (7-4-1)
		익숙한 교실, 낮선 얼굴들	가장 걱정인진..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부담되었던 것 같아요. 낮선 시선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8-10-1) 어색하긴 했죠 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6-5-1), 약간 새집으로 이사 온 느낌? 약간 익숙하지 않은 낮선 느낌이었어요(7-4-2)
		이제, 누구와 밥 먹지?	일주일 정도는 걱정을 했어요. 그냥 이제, 밥 누구랑 먹지..?(5-5-1)
	새로운 학번에 녹아들기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함	일부러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말도 걸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학번 중에서 전 좀 이방인이고 역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될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4-6-2)
		유급생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함	술 마시고 학교 안 나오고 공부안하다가 유급당한 사람. 최악이잖아요.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지만 자기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헬스도 다니고 살도 빼고 술도 줄이고 공부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변했는데?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소리 들을 때까지 노력해야죠.(2-7-1)
복학 경험	학습습관의 긍정적인 변화	학습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함	그걸 깨달았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서 유급을 당한거다.(2-6-1)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드러워지긴 했죠. 예전엔 다 짚다고 해야하나..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까기만하면 좀 비참하잖아요 여기 다니고 있는데.. (6-4-1)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을 잡음	유급했던 과목들은 거의 공부를 안했다 시피 했기 때문에 새롭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는 알겠다. 그런거죠.(1-7-1) 특정과목에서 특정교수님이 아 이 정도는 해야 진급을 시켜주시겠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할까 .. (4-4-1) 한 번 더 했으니깐 더 잘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깐. (7-4-1)
		미리 조금 더 공부하기 시작함	예전엔 거의 시험 당일 아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험공부를.. 그런데 지금은 미리 공부를 조금 해놨어요.(7-4-3) 집에 있으면 앉아서 공부하다가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하니까..집에서 나와서 미리 공부하려고해요(2-6-5)
		수업시간에 자신감이 생김	수업시간에 가끔 번호를 호명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시켜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3-11-1)
		같은 교과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함	(수업을 다시 들어보니까) 새로운 의미의 발견이랄까 왜 예전엔 이런 것을 몰랐지 하는 새로운 깨우침이 있었어요(1-7-2)
	도움과 위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음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오빠 어제 술 먹고 취해서 누구한테 전화했다며? 하지마 썸! 혹은 오빠 이번에 이거 나온대요’ 하면서 기출문제 가져다주면서 가르쳐주고 집어도 주고.. (2-7-4)
		같은 동아리 사람들에게 도움 받음	CMF 소속인 저희 학교 사람들이랑 좀 많이 친한 편인데 CMF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13학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빠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8-10-1)
		같이 유급한 친구와 함께 다니며 위안을 얻음	(같은 학년의 유급생 친구들) 유급생이나 그런 경우는 자신이 알던 사람 아니면 이야기하기 힘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위안이 됩니다. (4-6-1) 서로 다른 시기에 유급을 했는데 같이 만나게 되었죠. 혼자 다녔으면 힘들었겠죠. (6-5-1)

Table 10. 힘든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

주제 묶음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문장
힘든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	긍정적 변화의 계기	새로운 시작의 계기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자 반환점. 한의대가 만만치 않구나 너무 쉽게 봤구나.. (7-7-1)
		새로운 학번을 경험하며 안목이 넓어짐	한 학번만 보다가 다른 학번도 보면서 이런 모임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안목이 좀 많이 넓어 진 것 같아요. (7-7-1)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던 시간	좀 더 성숙해진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옛날에 되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 아파하고 잘 울고 좀 서러워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쯤이야 별거 아니야 하고(3-13-1)
	여전히 아픈 성장통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유급..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하하 ..(2-6-3)
		꿈에서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만 했던 현실	꿈에서라도 상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중략) 너무 상상하기 싫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3-16-1)
		설마 했던 일	사실 유급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살겠지란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8-3-1)
		내 인생의 쓰나미	인생은 파도와 같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인생에 쓰나미가 온 거지. (7-6-1), 사실 근대 큰 파도가 겹치고 겹치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어요.(7-6-2)

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0,11)}에서 학생의 의지, 정신적, 감정적인 동요가 유급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Tinto¹²⁾가 주장한 고등학생 때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대학에 들여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시작하면 학과를 적응하기 힘들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였다. 둘째, 유급경험은 ‘꿈에서라도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모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거나, 대학생, 성인으로써 얻는 자유로움 뒤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³⁾. 이는 김 등³⁾과 장 등이⁴⁾ 입학 전 내적동기의 결여나, 학습유형의 적응 실패로 인한 유급경험을 통해, 자기 성찰, 자기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Hanger의 연구¹⁴⁾에서 유급이 징벌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쉽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유급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이후 여행, 게임, 운동 등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유급 방학 기

간 동안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내재된 감정이 심층인터뷰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의학과 특성상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많으므로, 자신이 1년 유급한 것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다. 셋째, 한의과대학생의 유급은 독립적 학습관리 역량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급 당시 ‘누군가가 자신을 관리해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교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 또는 부모님의 비교적 엄격한 관리 속에서 학습을 경험했던 학생일수록, 대학에서의 독립적 학습요구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등³⁾이 대학의 경쟁지향적인 구조와 동기들 간의 불신이 유급의 주요원인이라고 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부적응, 독립적 학습역량의 부족 그리고 개개인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학업역량의 제한이 나타났고, 유급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과대학 내의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과 학습상담, 학생관리 등 지지체계의 개선이 유급학생 예방과 관리에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유급 후 복학한 학생들로 유급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험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참여자 대부분이 유급을 1회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유급경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12개의 한의과대학 중 1개의 대학에서만 진행된 유급경험 연구로 전체 한의과대학생의 유급경험으로 일반화시키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의과대학생의 유급은 대부분의 경우 성인이 되고 처음 겪는 삶에 큰 시련이었으며, 부모님의 관리에서 벗어나, 독립적 삶을 준비하는 시행착오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복학 이후 일취월장의 성적 향상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유급기간 다양한 경험과 함께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다소 어려운 학문인 한의학의 새로운 면을 배우며, 대학교의 학습시스템에 적응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내적강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유급생의 상담 및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1. Kim BG. 전국 한의대생 휴학을 3.4%로 나타내.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2011; http://www.skoms.org/webzine/200904/bbs/bbs/board.php?bo_table=02_01&wr_id=383
2. Park J, Park SG, Park SH, Do NY, Song CH, Lee SI, LiM SC. The Pilot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Flunk System in Chosun University Medical School.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1998. (23):185-94.
3. Kim SH · Jeon WT. Original Article : The Failure Experiences of Medical School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8 (20):4 351-36.
4. Jang AK · Yang Jw.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Being on and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 Korean Journal Counseling. 2013. (14):2 995-1013.
5. Han RE · Chung EK · Oh SA · Chay KO · Woo YJ. : Medical Students' Failure Experiences and Their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2. (24):3 233-240.
6. Park CW, Park SH, Cho YR.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9; 38: 985-996.
7. Tooth D, Tonge K, McManus IC. Anxiety and study methods in preclinical students: causal relation to examination performance. Med Educ. 1989; 23: 416-421.
8.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6.
9. Shin HT, An HJ.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4; 23(3): 165-175
10.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11. The Korean Council of Deans of Medical College. The current educational status of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Gyechukmunwhasa. 1996; 9(0)
12. Thomas CB. What becomes of medical students: the dark side. Johns Hopkins Med J. 1976; 138: 185-195.
13. Tovar, E., & Simon, M. A. Academic probation as a dangerous opportunity: Factors influencing diverse college students' succes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2006; 30, 547-564.
14. Tinto, V.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5. Kim DJ. A Study on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RCL and LG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12; 25(2). 241-261.
16. Ju YA, Kim YH, Won KS. An Exploration

Study of the Factors for Under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Failure and Academic Persistence on Academy Probation: Focus Group Interview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2012; 14(4): 47-69.

17. Hanger, M. A., Goldenson, J., Weinberg, M., Schmitz- Sciborski, A., & Monzon, R. The bounce back retention program: On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2011; 13: 205-227.